

페플럼 블라우스의 조형적 특성과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

권정숙·구미란**

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과 부교수·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과 조교수**

The Study of Design Characteristics of Peplums Blouses and Their Constituents - Based on the Survey in Domestic Online Shopping Malls -

Jung-Suk Kwan · Mi-Ran Koo**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 Clothing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 Clothing Kyungnam University**

(2014. 7. 15. 접수; 2014. 8. 26. 수정; 2014. 8. 29. 채택)

Abstract

Peplums have a great advantage in easy styling for wearers to acquire desired physical and reminiscent images depending on the type and where it is placed on the waist line. However, the study of peplum blouses has not yet recognized. This study suggests a baseline data for visual appraisals as a determined key factor is changes. The result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peplums published between 2012 through 2014 collections are used for decorative effects on tops or bottoms as the finest decoration details of fashioning women's physical attractiveness. Its application has been extended to various fashion themes such as belts and overskirt that are made of peplum itself. Second, peplums published between 2012 through 2014 collections have close correlation of how the position, shape, and length of peplums are attached on bottoms. Peplum effects are categorized as extension of tops, expansion of bottoms, connections of tops and bottoms, and separation of tops and bottoms. Third, total of seventy nine peplum blouses that are found in the domestic online shopping mall are analyzed. The total length of peplum blouses are generally produced to 56 to 61cm, which is little shorter than or approximately equal to the hip line of women aged in between twenty to twenty four. In addition, the most popular peplum design is made of flare and cutting lines on the waist line and is 45.56% of samples. The most common location of peplums is identified as 3 to 6 cm above the natural waist line or the natural waist line and is 78.47% of samples. Fourth, the key factor of peplum blouse tha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visual image is the total length of blouse, position of peplum, and peplum shape.

Key Words: Peplum blouse(페플럼블라우스), Position of peplum(페플럼 부착위치), Peplum effect(페플럼 효과), Flare peplum(플레어페플럼), Gather peplum(가더페플럼)

I. 서론

의복은 인체를 돋보이게 하거나 인체의 형태를 재구성함으로써 미적 관련성을 갖는다. 현대

인들의 인상형성은 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의복은 의복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혹은 비언어적 상징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이미지와 의사를 전달하는 무언의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의복에 의한 시각적 이미지 형성은 디자인 요소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복제작에 있어 디자인적 요소 뿐 아니라 구성학적인 측면에서의 패턴디자인에 따른 착용자의 시각적 이미지 효과에 대한 영향 또한 크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페플럼은 재킷, 베스트, 블라우스 등의 허리선 아래로 작은 러플이나 플라운스, 플레어 등을 넣은 것으로 허리를 강조한 디자인에 많이 응용된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천을 몸에 감아서 걸치던 긴 의복을 '페플로스(peplos)'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패션전문자료사전 II, 2012). 일반적으로 페플럼은 재킷이나 블라우스에 사용해왔지만 현재에는 트렌치코트나 드레스, 펜슬 스커트, 팬츠, 쇼츠, 벨트로 자유분방하게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소니아 리켈은 페플럼과 벨트를 함께 만들어 디자인 악센트를 주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며 여성스럽고 우아한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12 S/S 컬렉션 중 여러 디자이너들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듯, 허리는 조이고 힙 아래를 플레어지게 볼륨을 준 미디길이의 A라인 스커트에 페플럼 디테일을 강조하였다. 미니멀리즘이나 전위적인 실험적 이미지의 룩은 잠시 정체되고 여성성과 모던함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경향에서 눈에 띄는 디테일이 페플럼이다. 베라왕(Vera Wang), 셀린느(Celine), 지방시(Givency),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같은 디자이너들과 J. Crew, H&M, Zara 등 주류 리테일러의 주요 아이템으로 페플럼이 애용되고 있다. 페플럼 디테일은 원피스나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구성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레이디라이크 룩'의 대표 아이템이며 허리선의 위치, 페플럼 형태의 변화에 따라 착용자가 추구하는 신체적, 연상적 이미지로의 표현이 용이한 페플럼 블라우스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페플럼 블라우스의 디자인요소

에 의한 연구뿐만 아니라 패턴디자인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2014 컬렉션에 나타난 페플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 블라우스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또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페플럼 블라우스를 패턴 디자인의 측면에서의 변인을 탐색하고 그 변인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위한 의복자극물을 개발함으로써 페플럼 블라우스의 시각적 이미지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2012~2014 컬렉션에 나타난 페플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 판매 실적이 우수한 온라인 쇼핑몰에 나타난 페플럼 블라우스의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한다.
- 페플럼 블라우스 패턴디자인의 변인을 탐색하고 그 변인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페플럼블라우스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페플럼이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의 패션 관련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패션넷코리아, 스타일닷컴과 같은 패션지식 포털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자료 분석을 통해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디자인 형태 및 표현기법, 실루엣, 소재, 색상 등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패턴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자인 형태를 위주로 페플럼블라우스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블라우스의 구성 요소의 자료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NAVER 지식쇼핑에서 검색한 페플럼블라우스 중 지식쇼핑 랭킹 순인 정확도지수(카테고리 연관성/가격비교 선호도)와 실적지수(지식쇼핑을 통한 판매실적과 상품클릭수) 등을 점수화하여 정렬한 순위 600 중 중복되어 판매되고 있는 디자인들을 제외한 총 79개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나타난 페플럼 블라우스의 구성요소 분석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판되고 있는 총 79개 페플럼 블라우스를 대상으로 페플럼을 형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의 분석을 위해 쇼핑몰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측사이즈인 총길이를 기준으로 허리절개선의 위치, 페플럼의 디자인형태 등을 분석하였다. 페플럼블라우스의 페플럼 부착 위치는 출력한 사진에서의 실제 총길이를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제시하고 있는 블라우스 총길이의 비율을 비교하여 부착위치를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페플럼 블라우스 패턴디자인의 변인 탐색

(1) 시각적 평가를 위한 페플럼 블라우스 디자인 선정

본 연구에 사용될 페플럼 블라우스의 디자인은 페플럼과 관련된 분석 자료 중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사진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페플럼 블라우스의 시각적 효과의 변화요인을 결정하고 요인에 따른 단계별 디자인을 선정하여 자극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페플럼 형태 2단계와 페플럼 부착위치 5단계의 2원 요인으로 설계되어졌다.

(2) 자극물의 제작

시각적 평가를 위한 자극물의 제시는 패션잡지의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 바디나 마네킹에

자극물을 착의시킨 상태로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제시하고자 하는 자극물을 실제 제작하여 실제 모델이나 바디, 마네킹에 착의시키거나 가상 착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이정순, 2014). 본 연구를 위한 자극물은 가상봉제 3D CAD인 CLO 3D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자극물의 소재는 cotton 100%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아바타에 착용되는 하의는 타이트스커트로 정하고 이때 페플럼 블라우스는 흰색의 민소매와 라운드 넥라인이다. 사용된 신체치수는 2005년 사이즈코리아 20~24세 여성의 등길이, 엉덩이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를 사용하였다. 시각적 효과의 변화 요인으로 조합된 자극물은 Yuca CAD를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한 후 DXF파일로 전환하여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LO 3D에서 가상 착의하여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2012~2014 콜렉션에 나타난 페플럼의 조형적 특성

2012 S/S에는 1940년대 패션의 재조명과 가장 주목되는 디자인 디테일로 페플럼이 부각되었다. 1947년 Christian Dior 의 “New Look”의 근간이기도 한 페플럼은 일반적으로 상의의 허리선에 플라운스(그림 1, 2)나 프릴(그림 3)로 부풀린 형태로 장식되었다. 하지만 2012 F/W 시즌 이후에는 코트나 드레스를 비롯하여 스커트, 바지, 벨트 등으로 페플럼의 표현영역이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페플럼의 표현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가는 허리와 엉덩이의 볼륨감을 극대화하여 여성의 인체미 표현에 최적의 장식 디테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는 패션트렌드에서의 페플럼의 역할이 단순히 프릴이나 플라운스의 율동미로 표현되는 엘레강스하고 로맨틱한 여성미의 표현뿐 만 아니라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밀리터리, 모던, 스포티, 캐주얼, 매니쉬 등의 다양한 패션 테마로 활용 범위가



<그림 1> 2012 S/S
Alexander McQueen
(출처: 패션넷코리아)



<그림 2> 2012 S/S
Yves Saint Laurent
(출처: 패션넷코리아)



<그림 3> 2012 S/S
Nina Ricci
(출처: 패션넷코리아)



<그림 4> 2013 F/W
Sacai
(출처: 스타일닷컴)



<그림 5> 2013 F/W
Chanel
(출처: 스타일닷컴)

확대되고 있다. 또 페플럼의 형태나 길이, 페플럼 부착 위치에 따라 페플럼이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13 F/W Sacai(그림 4)의 울 재킷은 페플럼의 부착위치를 착용자의 골반위치로 내리고 바디스의 양쪽과 소매부분을 다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발랄하고 캐주얼한 이미지로 페플럼을 표현하였다.

Chanel(그림 5) 역시 페플럼의 부착위치를 착용자의 힙선 수준으로 낮춰 달아줌으로써 하의에 착용한 하프 플레이어팬츠와 조화롭게 표현되었다. 이 같은 Chanel의 페플럼은 소년 같은 여성미를 표현하며 ‘샤넬 룩’으로 불렸던 1920년대 가르송느 룩(Garconne look)에 페플럼을 이용하여 샤넬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페플럼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그 중 페플럼의 부착위치는 착용자의 시각적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기존의 페플럼은 상의 연장의 개념으로 상의 허리선 정도에 부착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니멀리즘의 대표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Celine의 Phoebe Philo는 차갑고 단순하게만 느껴지는 미니멀한 화이트 톱과 와이드 팬츠에 심플한 동색의 페플럼을 장식하여 ‘페미닌 미니멀리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를 완성했다. 페플럼의 부착위치는 하이(그림 6)나 로우웨이스트(그림 7) 등에 위치하여 단정한 여성적 이미지와 캐주얼한 이미지로 각각 표현되고 있다. 2013 S/S Thierry Mugler(그림 8)는 하의인 스커트에 여러 층의 페플럼을 부착하여 마치 상의의 연장된 형태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힙의 볼륨을 극대화한 형태인 하의 확장의 개념으로 페플럼을 사용하고 있다. 2014 S/S Balenciaga(그림 9) 역시 짧은 상의의 허리선에 페플럼이 부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숏팬츠의 앞판 양옆선에 페플럼을 부착하여 하의를 확장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또 2014 S/S Proenza Schouler(그림 10)는 와이드 팬츠의 허리선에 페플럼을 부착하여 하의 확장의 또 다른 형태를 보였으며 2012 Lanvin(그림 11)은 페플럼 조각을 레이어드하여 부드럽게 물결치는 울동감으로 가는 허리와 풍만한 힙의 곡선미를 강조하는 하의 확장의 형태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2014년 F/W Balmain(그림 12)에서는 밀리터리느낌의 재킷에 맞주름(inverted pleat)로 구성된 페플럼을 허리선에 부착하여 남성적인 밀리터리룩을 조금 더 경쾌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였고 외주름(one-way pleat)을 이용한 타이트 스커트를 디자인하여 투피스로 분리되어 있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하의가



<그림 6> 2012 S/S
Céline
(출처: 패션넷코리아)



<그림 7> 2012 S/S
Céline
(출처: 패션넷코리아)



<그림 8> 2013 S/S
Thierry Mugler
(출처: 스타일닷컴)



<그림 9> 2014 S/S
Balenciaga
(출처: 스타일닷컴)



<그림 10> 2014 S/S
Proenza Schouler
(출처: 패션넷코리아)

연결되어 있는 통일감의 효과를 피하였다. 2012 Lanvin(그림 13)은 원피스 드레스에 페플럼을 허리절개선에 부착함으로써 페플럼에 의해 상하의가 분리되어 마치 투피스를 착용한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 또 Peter Som(그림 14)은 원피스 드레스에 페플럼 벨트를 부착하여 투피스 착용 효과 뿐 만 아니라 벨트형식의 탈부착이 가능해 착용자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다양한 코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벨트형태의 페플럼은 2014 F/W Balmain(그림 15)의 의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코디언 포켓이 부착되어 있는 페플럼 가죽벨트를 가죽 라이더재킷 아래에 착용하여 상의 연장의 형태로 페플럼을 활용하였고 동시에 남성적인 여성미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페플럼 디테일은 부착위치와 디자인형태, 길이에 의해 착용되는 하의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의의 연장, 하의의 확대, 상·하의 연결, 상·하의 분리의 효과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2. 온라인 쇼핑물에 나타난 페플럼 블라우스의 구성요소 분석

국내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블라우스의 구성요소의 분석을 위해 선정된

시료는 총 79개이다. 분석에 사용된 총 79개의 페플럼 블라우스의 상품사이즈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페플럼 블라우스의 상품사이즈는 쇼핑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측 사이즈인 총길이를 기준으로 페플럼 부착위치, 페플럼의 디자인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페플럼 블라우스에서 페플럼 부착위치는 각 업체에서 제시한 블라우스의 총길이의 실제길이와 사진 상에서의 길이 비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된 79개의 자료 중 블라우스의 총 길이가 56~58.9cm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 29.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9~61.9cm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26.58%로 조사되었다. 총길이 62~64.9cm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15.19%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총길이인 47cm를 포함하여 55cm 이하는 11.3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총길이가 65cm 이상인 경우는 17.72%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긴 페플럼블라우스의 총 길이는 70cm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페플럼블라우스에 매치하는 하의 아이템으로 스커트 이외에도 스키니한 팬츠 등이 많아 hips 충분히 덮을 수 있는 65cm 이상의 총길이를 구성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



<그림 11> 2012 F/W Lanvin (출처: 스타일닷컴)



<그림 12> 2014 F/W Balmain (출처: 스타일닷컴)



<그림 13> 2012 F/W Lanvin (출처: 스타일닷컴)



<그림 14> 2012 F/W Peter Som (출처: 스타일닷컴)



<그림 15> 2014 F/W Balmain (출처: 패션넷코리아)

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블라우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56~61.9cm의 블라우스 길이로 전체의 55.69%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5 사이즈 코리아의 20~24세 여성 앞길이에 해당하는 목옆젓꼭지허리둘레선길이의 평균이 39.64cm이고, 등길이는 38.09cm, 엉덩이길이인 엉덩이옆길이의 평균이 23.02cm라는 것으로 비교해 보면 판매되고 있는 과반수이상의 페플럼블라우스가 착장

시 엉덩이둘레선보다 약간 짧거나 엉덩이둘레선 정도의 길이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에 제시된 페플럼의 디자인 형태는 허리에서 절개가 들어가고 플레어(Flare)인 디자인이 45.57%, 허리절개선과 턱(tuck) 디자인이 22.79%, 허리에 절개선이 없이 프린세스라인이 들어간 경우가 15.18%, 허리절개선과 개더(Gather) 디자인이 7.59%로 조사되었다. 또 허리

<표 1> 페플럼블라우스의 총길이에 따른 분류

	55cm 이하	56~58.9cm	59~61.9cm	62~64.9cm	65cm 이상
총길이	9 11.39%	23 29.12%	21 26.58%	12 15.19%	14 17.72%
대표 디자인					

<표 2> 페플럼블라우스의 디자인 형태에 따른 분류

	허리절개 /플레이어	허리절개 /턱	무절개 /프린세스	허리절개 /개더	허리절개 /혼합
페플럼 디자인 형태	36 (45.57%)	18 (22.79%)	12 (15.19%)	6 (7.59%)	7 (8.86%)
대표 디자인					

절개선에 개더&플레이어, 턱&플레이어, 턱&개더 등으로 혼용되는 경우도 8.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 블라우스의 대부분은 허리선에서 절개가 되고 플레이어가 들어가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페플럼의 전형적인 디자인이 가장 많았고, 가장 적게 생산되고 있는 것은 개더페플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은 페플럼블라우스의 페플럼 부착위치에 따른 분류이다. 2005년 사이크코리아의 20~24세 여성의 등길이의 평균치가 38.09cm이므로 허리둘레선에서 3~6cm 올라간 형태로 목옆점에서 33~36cm에 허리절개선이 들어가는 경우가 53.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7~40cm인 경우로 제 허리선 가까이에서 절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25.32%, 목옆점에서 29~32cm에 허리절개선이 들어가는 경우로 횡격막 근처인 하이웨이스트에 해당되는 형태가 10.13%로 조사되었다. 목옆점에서 허리절개선까지의 길이가 45cm 이상으로 세미로우웨이스트는 8.86%, 목옆점에서 허리절개선까지 28cm이하인 미드리프웨이스트는 2.53%로 조사되었다.

즉, 허리절개선은 제 허리선보다 위쪽에 위치한 하이웨이스트가 65.82%, 제허리선 위치를 포함한 로우웨이스트가 34.18%로 나타났다. 주로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를 위해 제허리선보다

페플럼 부착위치를 높여서 패턴을 설계하고 있었다. 따라서 페플럼 부착위치의 기본이 되는 허리둘레선은 상의와 하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곳이고 허리선의 높낮이에 따라 의복의 느낌은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페플럼 블라우스의 디자인에 있어 페플럼의 부착위치 즉, 허리선의 위치는 의복이 인체에 피트(fit)되는 정도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의복의 실루엣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3. 페플럼 블라우스 패턴디자인의 요인 탐색

2012~2014 컬렉션에서의 페플럼 조형 분석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페플럼블라우스의 구성요소를 비교분석 해 본 결과, 페플럼 블라우스의 변화요인으로는 페플럼 부착위치와 페플럼의 디자인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블라우스의 사진을 바탕으로 페플럼 부착위치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목옆점~페플럼 부착위치까지의 길이는 28cm 이하~45cm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사된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총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3.5cm의 간격 수치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제허리선인 네추럴웨이스트는 2005년 사이즈 코리아의 20~24세 여성의 등길이인 38.09cm로 정하

<표 3> 페플럼블라우스의 페플럼 부착위치에 따른 분류

	목옆점~허리선 28cm 이하	목옆점~허리선 29~32cm	목옆점~허리선 33~36cm	목옆점~허리선 37~40cm	목옆점~허리선 45cm 이상
페플럼 부착위치	2 2.53%	8 10.13%	42 53.16%	20 25.32%	7 8.86%
대표 디자인					

였고 네추럴웨이스트를 포함하여 하이웨이스트 2단계, 로우웨이스트 2단계로 총 5단계로 분류하였다.

자극물을 각 단계별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옆점에서 페플럼부착위치 31cm는 미드리프웨이스트, 기호 1로 표기하였으며 목옆점에서 페플럼부착위치 34.5cm인 하이웨이스트는 기호 2, 목옆점에서 페플럼부착위치 38cm는 네추럴웨이스트, 기호 3으로 표기하였다. 목옆점에서 페플럼부착위치 41.5cm는 세미로우웨이스트이며 기호 4로 표기하였고, 목옆점에서 페플럼부착위치 45cm는 로우웨이스트, 기호 5로 설정하였다. 또 페플럼의 디자인형태는 그 형태에 따라 큰 이미지 차이가 예상할 수 있는 2종류를 선택하였다. 페플럼의 디자인형태는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플레어페플럼과 가장 적은 생산 분포를 보이고 있는 개더페플럼으로 정하였으며 플레어페플럼은 F, 개더페플럼은 G로 표시하였다. 자극물에 사용된 블라우스의 총길이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페플럼 블라우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됨과 동시에 2005년 사이즈 코리아의 20~24세 여성의 등길이(38.09cm)와 엉덩이길이(23.02cm)를 합한 수치인 61cm로 결정하였고 이 길이는 착용자의 엉덩이둘레선을 약간 덮는 길이이다.

선정된 10개 의복자극물의 시뮬레이션 사진과 특징은 <표 4>와 같다.

페플럼 블라우스의 시각적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10개의 의복자극물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페플럼의 형태가 플레어로 되어 있는 의복자극물인 F1은 제 허리선에서 7cm 올라간 형태로 미드리프웨이스트의 플레어페플럼블라우스다. F2는 제 허리선에서 3.5cm 올라간 하이웨이스트의 플레어 페플럼블라우스고 F3은 제 허리선에서 플레어가 들어가는 페플럼블라우스다. F4는 제 허리선에서 3.5cm 아래로 내려간 세미로우웨이스트의 플레어페플럼블라우스다. F5는 제 허리선에서 7cm 아래로 내려간 로우웨이스트의 플레어페플럼블라우스다.

페플럼의 형태가 개더로 되어 있는 의복자극물인 G1은 제 허리선에서 7cm 올라간 형태로 미드리프웨이스트의 개더페플럼블라우스다. G2는 제 허리선에서 3.5cm 올라간 하이웨이스트의 개더 페플럼블라우스, G3는 제 허리선에서 개더가 들어가는 페플럼블라우스다. G4는 제 허리선에서 3.5cm 아래로 내려간 세미로우웨이스트의 개더페플럼블라우스고, G5는 제 허리선에서 7cm 아래로 내려간 로우웨이스트의 개더 페플럼블라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10개의 의복자극물을 통해 페플럼블라우스에서 페플럼 부착위치와 디자인형태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효과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페플럼블라우스 착용자의 이상적인 이미지 표현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표 4> 시각적 평가를 위한 의복자극물의 분류

	페플럼 부착위치					
	미드리프 웨이스트	하이 웨이스트	네추럴 웨이스트	세미 로우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	
페플럼 디자인 형태 (플레어)	F 1	F 2	F 3	F 4	F 5	
						
	페플럼 부착위치					
	미드리프 웨이스트 하이 웨이스트 네추럴 웨이스트 세미 로우 웨이스트 로우 웨이스트					
	페플럼 디자인 형태 (개 더)	G 1	G 2	G 3	G 4	G 5
						

IV. 결론

페플럼은 허리선의 위치나 형태의 변화에 따라 착용자가 추구하는 신체적, 연상적 이미지로의 표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 페플럼 블라우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2014 콜렉션에 나타난 페플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블라

우스의 구성 요소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성복에서 확산되고 있는 ‘레이디라이크 룩’의 대표 아이템인 페플럼블라우스를 패턴디자인의 측면에서의 변인을 탐색하고 그 변인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2014 컬렉션에 나타난 페플럼은 상의나 하의의 장식적인 효과로 사용되어 여성의 인체미 표현에 최적의 디테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페플럼 자체가 독립적으로 제작된 벨트나 오버스커트 형태로 구성되어 다양한 패션 테마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2012~2014 컬렉션에 나타난 페플럼은 부착위치와 형태, 길이에 의해 작용되는 하의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페플럼의 효과는 상의의 연장, 하의의 확대, 상·하의의 연결, 상·하의의 분리의 4가지 효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조사된 총 79개의 페플럼 블라우스의 상품사이즈를 분석해 본 결과 페플럼블라우스의 총길이는 20~24세 여성의 엉덩이둘레선 보다 약간 짧거나 엉덩이둘레선 정도의 길이인 56~61cm의 길이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또 페플럼의 디자인 형태로는 허리둘레선에 절개가 들어가고 플레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45.5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페플럼의 부착위치는 제 허리선보다 위쪽에 위치한 하이웨이트가 65.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하체를 길어보이게 하는 착시를 위한 패턴설계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페플럼 블라우스의 시각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는 블라우스의 총 길이와 페플럼의 부착위치, 페플럼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에 사용된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페플럼 부착위치를 제 허리선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2단계씩 3.5cm 간격으로 하여 총 5단계로 설정하였다. 페플럼의 디자인형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레어와 가장 적게 생산되고 있는 개더의 형태로 2종류를 선정하였다. 페플럼 부착위치와 디자인형태에 따라 총 10개의 자극물이 제시되었고 이 의복자극물은 YUCA CAD로 패턴제작 후 DXF파일 변환 하여

CLO 3D에 의해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된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처럼 최근의 컬렉션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플럼 블라우스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페플럼 블라우스에 있어서 페플럼의 부착위치와 페플럼의 형태는 페플럼블라우스의 시각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기초 자료인 10개의 의복 자극물을 중심으로 후속연구로 페플럼블라우스의 시각적 이미지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시각적 평가의 기초자료를 위해 사용된 사진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제시된 사진과 제품사이즈(총길이)를 기준으로 페플럼부착위치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수치를 구하였으므로 실제 사이즈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 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변인을 페플럼 부착위치와 페플럼 디자인형태만으로 제한하고 소재도 CLO 3D에 내장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분석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후 후속연구에서는 페플럼블라우스의 표현용어로부터 의미미분 척도를 개발하여 페플럼블라우스에서 페플럼 부착위치와 페플럼 디자인형태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를 통하여 블라우스의 구성 조건의 적정성 평가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정미. (2014). 현대 데님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 연구-2001년 이후 여성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1), 27-39.
- 김정미 · 이정순. (2009). 파워 숄더 재킷의 조형적 특징과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3), 125-134.
- 이경희. (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경. (2009). *3D 의상 CAD를 이용한 가상 의복과 실물 의복의 실루엣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순. (2014). 벨 버텀 팬츠(Bell Bottom Pants)의 시각적 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1), 15-26.

이정진. (2005). 원피스 드레스의 허리밴드 위치와 밴드 폭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어미경. (2012).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피스드레스의 디자인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2), 101-111.

편집부, (편). (2001). *패션전문자료사전II*. 서울: 민중서관.

PEPLUM PERIOD. 자료검색일 2014.3.25. 자료출처 <http://navercast.naver.com>

[패션] 반전있는 여자, 매니시룩 VS 로맨틱룩. 자료검색일. 2014.4.1. 자료출처 <http://weddinginfo.wef.co.kr>

2012-2014 뉴욕, 파리, 밀라노컬렉션. 자료검색일 2013.4.11. 자료출처 <http://www.style.co.kr>, <http://www.fashionnetkorea.com>

Vogue Korea. (2012. 2). *popular Peplum* pp. 159-161.